



## 한-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를 넘어 통상, 신산업, 전력, 제조 등 협력 고도화 기반 마련

- 5조원(39억불)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신규 수주 계약도 체결

한-카타르 정상회담(10월 25일(수), 도하) 계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와 산업·에너지 유관기관 및 기업들은 카타르 측과 계약(산업) 1건 및 양해각서 2건(통상 1건, 금융 1건) 등 총 3건을 체결하였다.

먼저, 공급망, 디지털·그린·바이오 경제 및 중소기업 등 분야로 양국 간 협력을 다각화하기 위해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양해각서(MOU)」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하마다 빈 알타니 카타르 통상산업부장관 간 체결되었다. 우리나라의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공급국(누적 기준)인 카타르는 재생에너지, 스마트팜, 문화·스포츠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 다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한-카타르 양국은 무역과 투자 증진뿐만 아니라, 디지털경제 및 바이오경제로의 전환과 공급망 다변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금번에 프레임워크를 체결하게 되었다.

또한, 통상,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카타르 진출 및 성과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무역보험공사는 카타르개발은행과 「금융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카타르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림수산업, 보건, 문화·스포츠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과 카타르 기업 간 비즈니스를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HD현대중공업은 카타르에너지와 5조 원(39억 불)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신규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9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건조를 위한 ‘기본합의서’를 채택한 바 있으며, 금번 우리 정부의 카타르 국빈 방문을 계기로 정식으로 본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세계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국인 카타르는 현재 연간 7,700만 톤 수준인 액화천연가스(LNG) 생산량을 2027년까지 1억 2,600만 톤으로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같은 고부가가치 선종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전망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조선업계의 수주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토대로 그간 액화천연가스(LNG) 중심의 한-카타르 간 경제협력이 향후 신통상,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재생에너지, 의료, 교육 등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였다.

|       |                    |     |     |                    |
|-------|--------------------|-----|-----|--------------------|
| 담당 부서 | 통상협력국<br>중동아프리카통상과 | 책임자 | 과 장 | 권현철 (044-203-5720) |
|       |                    | 담당자 | 사무관 | 이충녕 (044-203-5724) |



## 한-카타르 정상회의 계기 통상.에너지 관련 성과

### 1.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MOU

- (주체) (한) 산업통상자원부 - (카) 통상산업부
- (내용) 기존 협력 위원회에 **新통상이슈** 관련 협력 분야를 신규로 포함하고 구체적인 협력사업 발굴을 목표로 상설 협의 채널 설치
  - (협력 분야) 공급망<sup>(석유·가스·광물)</sup>, 디지털, 그린, 보건(바이오), 중소기업 등 **新통상 분야**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이 되는 **미래형 동반성장** 추구
    - \* 기존 MOU와 달리 공급망, 디지털 등 신통상 협력 분야별 내용을 부속서로 첨부
  - (협의 채널) 신속한 기업 지원 등을 목표로 정부간 **focal point\***를 지정해 원활한 정책 소통 및 협력 사업 관리 창구로 활용
    - \* 기존 정부간 위원회 내에 기업간 실질적 협력 지원을 위한 신속 협의 창구 설치
- (효과)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한-카타르 고위급 전략협의회(장관급)에 **新 통상이슈** 관련 협력 분야를 포함시킴으로써 양국 협의 채널 강화

### 2. 금융 협력

- (주체) (한) 무역보험공사 - (카) 카타르개발은행
- (내용)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투자 확대
  - 공동의 사업기회 모색 및 양국 기업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협력
- (효과) 우리 기업의 對중동 및 제3국 공동 수출 증진 및 투자 확대

### 3. LNG 운반선 건조 계약

- (주체) (한) HD현대중공업 - (카) 카타르에너지
- (내용) LNG 운반선 17척 본계약 체결
  - 현대중공업과 카타르에너지간 DoA계약\*('20.6월)에 따라 이번 17척에 대한 본 계약 체결
    - \* DoA(The Deed Of Agreement) : 선박 건조를 위한 슬롯(도크)을 예약하는 계약으로 선가 및 선박기본 사양이 확정되어 있으며 법적 구속력이 있음
- (효과) 39억불 수주로 현대중공업 올해 목표 달성 및 LNG 수주점유율 상승
  - 동 계약으로 현대중공업은 약 반년치 일감 확보, 올해 수주 목표 달성\* 및 추가 프로젝트 수주 기대
    - \* ('23년 목표) 118억불, ('23.10월 현재) 86억불, (동 계약 포함시) 125억불(106%) 달성
  - 중국과 LNG 운반선 수주 점유율\* 경쟁에서 압도적 우위 확보(74%→82%)
    - \* '23년 10월 현재(총 60척, 동계약 포함시) : (한국) 49척(82%), (중국) 11척(18%)